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0일 (윤달 5월 27일) 목요일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첫 단추

광주시, 오늘 건설추진협의회 출범식…윤장현-권영진 시장 공동성명

191㎞ 구간 잇는 고속화철도…총사업비 5조원 이상 투입 대형 국책사업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추진하는 광주~대구간 고속화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양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추진협의회에는 양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21명, 경북대 총장, 전남대 총장, 기초자치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대표 등 각 지역별로 26명씩 총 46명이 참여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191㎞ 구간을 잇는 고속화철도로, 총사업비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해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에 전달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영·호남 지역주민의 염원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공약에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양 지역의 소통과 화합, 공동발전을 약속하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정치 보복?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 캐기 정치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 불명의 서류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라에 국민 상대로 선전전을 벌리고 있다"며 '연간 300억 달러 이익이나는 한미FTA 재협상을 당하고도 사태의 심각성도 숨긴 채 검사가 하부기관이 국정원에 파견 나가 과거사 미화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남겼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홍준표

문재인

홍준표

순천만국가정원 300만명째 입장…지난해보다 한달 빨라

조충훈 시장 " 낮 뿐만 아니라 밤의 정원문화까지 선도"

19일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올해 관람객이 전날 오후 7시 55분께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충훈 시장이 300만명째 입장객에서 축하 꽃 목걸이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올해 관람객이 18일 오후 7시 55분께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마와 폭염이 반복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여름밤의 물빛축제'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으면서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300만명을 돌파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14일 관람객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린 한여름밤 물빛축제가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펼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3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입장한 부가영(27·여)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내일로 여행을 하던 중 한여름밤의 물빛축제를 보러 순천에 들렀는데, 300만 번째 입장이라는 소중한 추억 하나를 만들어 가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도에서 순천을 방문한 부 씨에게는 물빛축제 주제에 맞춰 빛으로 장식한 축하 꽃목걸이와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이 전달됐다.

조충훈 시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6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이 543만여명을 기록해 지역 관광지로는 유일하게 5위안에 들었다"며 "이는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국가정원이 낮뿐만 아니라 밤의 정원문화까지 선도하는 소중한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첫번째 사계절 축제로 봄꽃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물빛축제에 이어 정원갈대축제, 별빛축제 등 일년내내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유·스퀘어, 서비스 품질 평가 '8년 연속 1위' 달성

유·스퀘어(U 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8년 연속 서비스 품질 평가(KSQI) 1위를 달성했다.

유·스퀘어는 19일 '2017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스퀘어는 2010년 처음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이후 8년 연속 서비스 품질 지수 1위를 기록하게 됐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하는 'KSQI'는 신분을 숨긴 조사원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설환경, 인사, 복장, 용모, 경청태도, 친절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유·스퀘는 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유·스퀘어는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편의를 돕고, 현장에서 즉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해왔다.

길게 줄을 서지 않고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 발권기를 설치하는 등 이용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가꾸는데도 노력해 왔다.

뷔페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입점시켜 지역의 외식 문화를 선도해 온 유·스퀘어는 지난해 전국의 맛집을 한 곳에 모은 '라스랑블라스' 1호점을 국내 최초로 오픈하며 새로운 맛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름다운예술시장'에서 지역작가들이 각종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통해 오케스트라, 버스킹 밴드 등의 공연을 무료로 열며 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변신시켜 왔다.